

생 / 산 · 소 / 비 / 분 / 야

소비자는 어떤 양돈농가가 살아남기를 바라는가?



서 중 태 팀장
부경양돈조합 양돈 지원실팀

최근 몇 년 동안 돼지 마리 당 20만원대를 넘나드는 돈가의 호황 속에서 양돈업계는 안정적인 산업으로 뿌리를 내리는 듯 했으나 구제역 파동으로 대 일본 돈육수출이 중단되었는데도 오히려 사육두수가 증가하는 기현상을 나타내어 양돈관련 전문가들도 양돈업의 미래를 진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하고 있다.

실제 농장을 순회 지도하는 입장에서 각 농장주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돈가 폭락 사태를 계기로 양돈업계가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즉 자금력이나 생산성이 뒤떨어진 농장은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 도태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생산성이나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장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계속 양돈업을 지속하는 것은 당연

한 일이라 판단되지만 여기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 더 있다. 사육 규모가 적은 500두 미만의 부업농의 경우 대부분 생산성이 낮으면서도 개인의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돈가가 하락한 현재 전업농에 비하여 고통을 적게 받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업농의 사육두수가 1999년 12월말 현재 약 150만두에 육박하는 점에서는 부업농의 사육 두수가 돈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대는 시장구조가 소비자 우선 시대이다.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제품 생산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기증 사실이다.

소비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격화된 고급 원료돈 생산잠재력은 전업농의 경우가 부업농에 비하여 훨씬 우위에

있는데도 전업양돈과 부업양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원료돈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도 크다고 본다.

경쟁력 있는 양돈 농가란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농장주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나 자금력이 있는 농장을 일컫는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급 육을 저렴하게 생산하는 농장이 경쟁력 있는 농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쟁력이라는 개념에 소비자의 뜻을 충분히 반영할 때 안정적인 양돈산업의 미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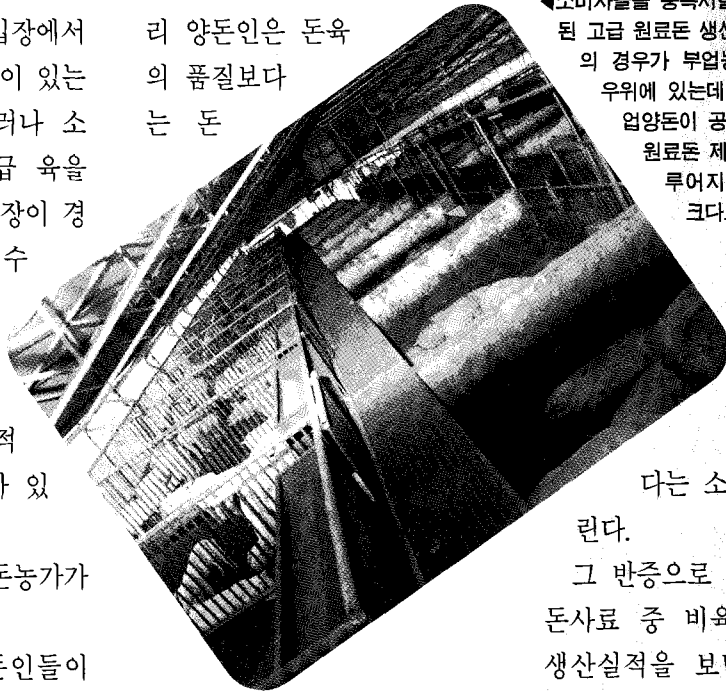
소비자는 어떤 양돈농가가 살아남기를 바라는가?

이것이 우리 양돈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감히 생각한다. 돈육 생산은 일반 공산품처럼 일률적으로 규격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양돈 선진국에서는 고급화, 규격화를 다각적인 노력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도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양돈인들의 의식 구조조정이 선결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첫 번째가 원료돈을 생산할 때 소비자가 어떤 돼지고기를 원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우리 양돈인은 돈육의 품질보다는 돈



가나, 농장의 생산성 향상과 출하일령 단축 등은 중요시 하면서도 PSE돈육 발생 예방을 위하여 출하 스트레스를 방지하라고 지도하여도 대부분의 농장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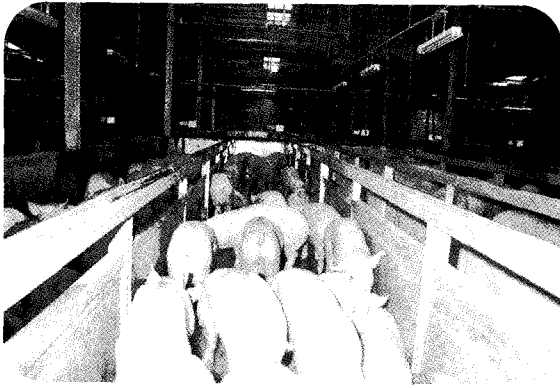
또한 돈육 수출이 한창일 때 정부에서 고급돈육 생산 시책으로 A,B등급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비육후기 사료 급여조건으로 제한할 때 일부 농가에서는 비육후기 사료 급여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그 장려금을 지급 받기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동원했

◀소비자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규격화된 고급 원료돈 생산잠재력은 전업농의 경우가 부업농에 비하여 훨씬 우위에 있는데도 전업양돈과 부업양돈이 공존하고 있는 것은 원료돈 제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요인도 크다고 본다.

다는 소문도 많이 들린다.

그 반증으로 우리 나라 양돈사료 중 비육후기 사료 생산실적을 보면(표1) 전체 사료생산 대비 약 5.1%내외다. 이 중에는 항생제만 무첨가한 육성돈 사료도 일부 포함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소비자 중심의 돈육생산이라면 비육후기 사료를 전체사료량의 약 25%이상 급여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산 현장에서는 아직도 생산성 향상이 곧 경쟁력 향상이라는 소비자 상심의 화두를 잡고



◀ 항생제 등 기타 유해잔류 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한 고급돈육을 생산하는 농장이 있다면 반드시 차별화 되어야 하며 이는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경쟁력을 논하고 있다. 즉,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한 경영방식에서 소비자를 위한 돈육제품을 생산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나 생산자 단체간 신뢰성 회복이 있어야 한다.

양돈업계는 IMF와 구제역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하게 현장에서 느껴진다.

돈가 안정화를 위해 정부 및 생산자 단체 등에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10%감축

도체등급 규격기준 하향조정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지만 어느 것 하나 가격안정화에 크게 기대할만한 것은 없다.

특히 모든 10%감축의 경우는 그 기대 효과가 최소 10개월 후 비육돈 출하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농장 입장에서는 감축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콜레라가 청정화되고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대일돈육 수출 재개를 목전에 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실제 모돈을 평소보다 많

운동, 정부수매 비축사업, 필리핀, 대만 수출 대책,

이 도태한 농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능력이 떨어지는 모돈을 이 기회에 정리할 뿐이고 신규 후보돈 입식은 꾸준하게 실시하는 실정이다.

셋째, 생산현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큰 문제점은 기록의 부재이다. 물론 농장전산화를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꾀하고 철저한 경영분석을 바탕으로 양돈을 경영하는 농장이 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농장들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역으로 설명하면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도 호황을 누리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돈가가 좋았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도 살아

남을 수 있는 돈가라면 그 돈가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돈가라는 의식이 싹터야 한다. 그러나 최근 농장 전산프로그램들이 매우 다양하게 보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본다.

넷째, 우리 양돈업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약하다는 것은 여러 곳에서 지적된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내 농장만 열심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본다. 즉, 양돈인 전체가 살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돈육소비촉진 대책을 수립하고 적정사육두수를 제시하여야 하며, 정책적인 구심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조금제도도 마련되어야 조직적인 결집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이 양돈인 스스로의 참여에서 이루어지며 또한 양돈인의 몫이라고 인식할 때 해결 될 것이다.

다섯째, 양돈 관련 회사 및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되어 소비자

〈표1〉 비육돈 사료생산비율

용도별 및 사료종별		톤	%
자돈용	젓먹이돼지	264,850	7
	젓편돼지	949,052	25.1
비육돈용	육성돈 전기	1,080,927	28.6
	육성돈 후기	476,171	12.6
	비육돈	90,139	2.4
	비육돈 출하	105,252	2.7
번식돈용	번식돈 수태지	19,747	0.5
	번식돈 암태지	20,093	0.5
	임신돼지	420,732	11.2
	포유돼지	353,716	9.4
합 계		3,771,129	1,008

* 2000년 9월까지 양돈사료 생산량

〈표2〉 비육후기사료 급여비율과 PSE돈육 출현관계

PSE출현율	후기사료 급여비율	육탄력성	비교(농가수)
30~39	24.3	2.20	6
40~49	21.5	2.05	21
50~59	7.5	1.86	22
60~69	7.1	1.78	28
70이상	6.2	1.66	13

* 자료기준: 부경양돈 원료돈 12,064두를 자체적으로 검사한 자료
비육후기사료 급여기간: 3개월(2000년 7월~9월) 평균 급여 비율
육탄력성: 계수는 부경양돈조합에서 자체적 검사기준(1.2,3,4점으로구분함)

에게 신뢰성을 주어야 한다. 양돈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치열한 사료판매 경쟁으로 인하여 출하일경 단축, 사료요구율 향상을 극대화한 제품이라는 판촉 전쟁으로 양돈 농가를 현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는 비육후기사료를 급여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며 그러한 농장은 경영을 모르는 경영주라고 매도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양돈 농가에게만 유리한 사육 방법보다는 소비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바람직한 사양기술이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 대일 돈육 수출이 한창일 때 돈육 품질의 개선점으로 대두된 것을 나열해 보면, 조기속성 출하로 인한 PSE육 출현을 증가, 육탄력성 저하, 공격화 부족, 적절한 삼원교잡 미실시, 비육후기사료 급여문

돈육의 품질이란 단순히 농장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종, 사료, 사양관리, 육가공 유통 등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최소한 농장에서의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농장과 그렇지 않는 농장이 차별화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제, 항생제 잔류 등이었으며 일부 농장들은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도 많이 했었다. 그러나 수출 중단후 많은 농장들이 품질보다는 빠른 증체에 비중을 많이 둔 것은 양돈인 스스로 우리 나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돈육의 품질은 수출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 나라도 급속하게 식문화가 바뀌고 냉동육에서 냉장육 소비로 급변하고 있다.

냉장육 유통시 품질 저하 요인중에서 PSE돈육이나 육탄력 저하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그러므로 고급돈육 생산 프로그램 도입은 필수적인 것이다.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살아남는 시대로 변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생산성만 향상된다고 선진국형 양돈산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양돈업계는 생산성 향상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반면 돈육의 품질을 겨냥한 사양관리나, 안전한 축산물로 가공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 구축의 필요성에는 구호에 비하여 실천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부터라도 분노의 효과적인 처리나 자연 순환형의 친환경적인 양돈산업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정부 및 관련 학계, 업계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돈인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양돈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는 양돈 연수교육 체계가 더욱 강화되고 항상 편리하게 기술을 보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품질인증제도가 정착되어야 한다.

돈육의 품질이란 단순히 농장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육종, 사료, 사양관리, 육가공 유통 등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전반적인 관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이지만 최소한 농장에서의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농장과 그렇지 않는 농장이 차별화 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항생제 등 기타 유해잔류 물질로부터 안전하고 청정하고 고급돈육을 생산하는 농장이 있다면 반드시 차별화 되어야 하며 이는 양돈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소비자에게 신뢰성을 안겨주는 품질인증 농장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서 육성 및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소비자 입장에서 되짚어볼 경우, 새로운 대처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수출중단으로 인한 비선호부위 적체 현상도 우리 양돈인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요리법이나 사용방법을 찾아서 널리 홍보하지 않은 요인중의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는 「양돈인이 살길」을 너무 찾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좀더 큰 시야로 「소비자를 위하여 양돈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을 때 양돈산업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 **양돈**